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2020년 9월 기준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머스크 최대



물류정책 · 산업동향

1. 코로나19,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견인
2. DHL, 연말 물량 증가 대비 자동화 및 고용 투자 확대
3. 세계 최초 선원용 전자화폐 MarCoPay 9월 유통 개시

명사 스피치

“대형선박에 비해 입출항이 잦아 항비에서 예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선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방식과 수준의 예선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.”

한국유조선사협의회 박성진 회장
(2020. 9. 9 /한국해운신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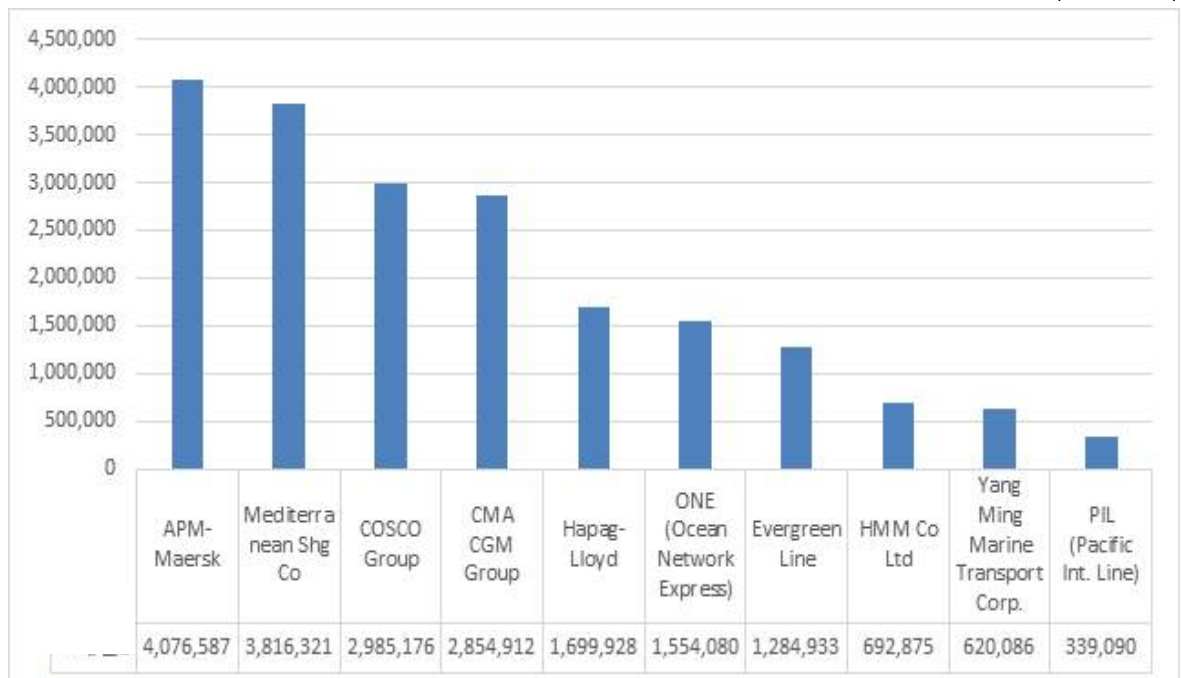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2020년 9월 기준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머스크 최대

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순위('20. 9. 2 기준)

(단위 : TEU)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2020년 9월 2일 기준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조사한 결과 Maersk가 4,076,587TEU로 가장 많았음
- MSC는 3,816,321TEU로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함
- 뒤이어 3위 COSCO, 4위 CMA CGM가 뒤쫓고 있음
- 우리나라 해운기업인 HMM은 692,875TEU의 선복량을 기록하며 8위를 차지함

■ 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 (검색일: 2020. 9. 8)

류진아 연구원

051-797-4788, jaryu@kmi.re.kr

코로나19,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견인

-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동안 견고하고 유지되어 오던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·GVC)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
 - 이는 코로나19가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역할과 기능을 감소시키며,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임
 - 즉 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는 위기관리 측면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- 현재 세계 각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, 이에 주요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
- 기술의 발전, 세계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저부가가치 생산 활동은 개발도상국으로 오프쇼어링(Off-shoring)¹⁾ 되었고, 고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연구·개발, 디자인, 마케팅 등의 업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음
 - 하지만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델은 외부 충격에 대한 모든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함
 - 갑작스럽게 시작된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으며,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는 마스크, 인공호흡기 등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제품의 수요에 대응하기가 힘든 상황임
-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으며, 현재 구축된 생산 체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
 - 세계무역기구(WTO)는 올해 세계 무역량이 13~32% 감소할 것이라 전망함
 -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도 2020~2021년 해외직접투자(FDI)가 30~40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
-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동화, 리쇼어링 등의 정책을 통해 수요 충격 및 변화에 더욱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
 -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에 대한 재구축과 더불어 리쇼어링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 - 하지만 리쇼어링의 경우 상당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

■ 참고자료 : www.thefinancialexpress.com(검색일: 2020.9.8.)

신수용 부연구위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1) 기업들이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현상을 뜻함



DHL, 연말 물량 증가 대비 자동화 및 고용 투자 확대

- DHL 그룹의 사업부인 DHL eCommerce Solutions는 2020년에 약 3,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서의 운영을 확대하고 현대화할 계획임
 - 이와 같은 현대화 계획에는 미국 내 첫 번째 풀필먼트 센터와 시카고, 로스앤젤레스 및 뉴저지 Avenel의 임시 유통센터 공간 매입이 포함됨
- 올해 전자상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애틀랜타 지역에 자사 소유 빌딩으로 이전하여 미국 내 영구거점을 두게 되었음
 - 미국 대도시에서 추가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계획을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음
 - 이 빌딩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공항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, 15만 평방피트 규모임
- DHL은 이번 연말 연휴 기간에 전자 상거래량이 전년 대비 30~50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 - 이번 초기 투자에는 신축 건물 외에도 시간당 20,000~30,000 개의 소포를 처리할 수 있는 분류기가 포함될 예정이며, 물류센터는 미국 내 경량 소하물을 주로 처리할 계획임
- DHL eCommerce Solutions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19개의 물류 센터와 3개의 기업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3,000 명의 직원이 근무 중임
 - 동사는 B2C 온라인 가맹점 서비스, 경량 패킷 및 소하물을 미국 내와 해외로 배송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
- 2020년 하반기 연휴(2020년 11~12월) 물량 증가 예상에 따른 자동화 장비 투자도 계획되어 있음
 - 동사는 이와 같은 물량 증가 전망에 따라 3분기 말과 4분기에 900명의 새로운 유통센터 직원을 고용할 예정임

■ 참고자료 : www.ajot.com(검색일: 2020.9.9)

이지원 연구원

051-797-4799, jiwon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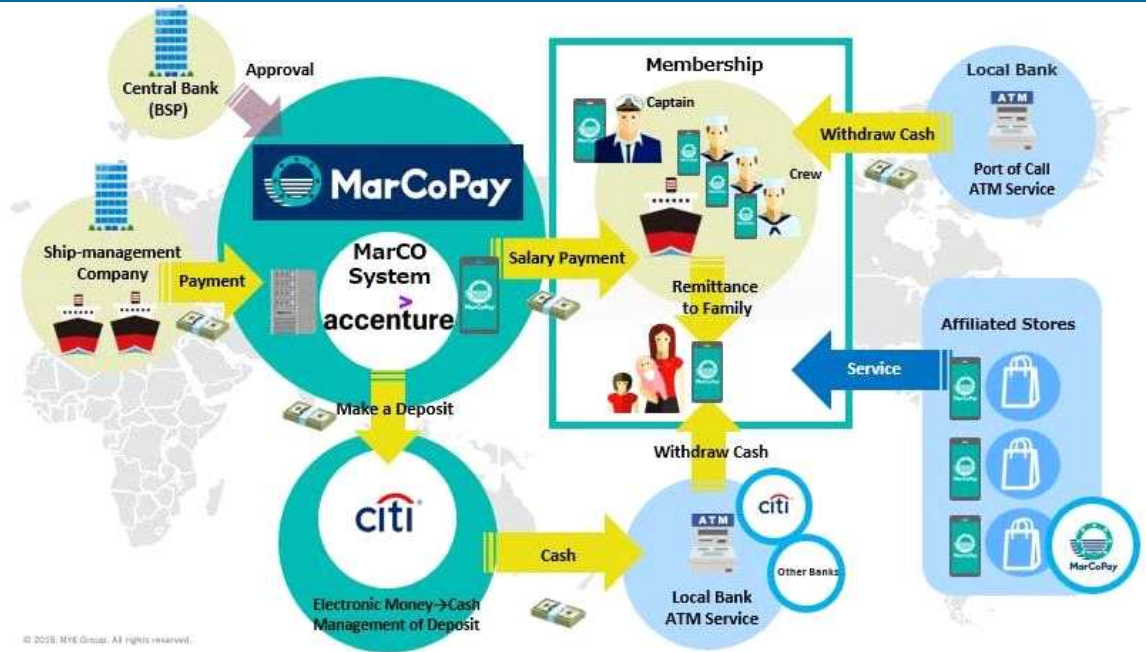


세계 최초 선원용 전자화폐 MarCoPay 9월 유통 개시

- NYK, Accenture, 시티그룹(City Group) 등이 공동으로 개발해 온 선원용 전자 화폐 플랫폼 마르코 페이(MarCoPay)의 운용이 2020년 9월부터 시작됨
 - 급여 지급, 자국 송금, 생활용품 구입에 대한 비현금화(cashless)를 도모하며, 전 세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
- 2020년 1월 기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의 현금 교환을 대체해 전자 화폐화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음
 - 우선적으로 NYK 보유 선박 200척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장래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며, 궁극적으로 마르코 페이 경제권(經濟圈) 구축을 목표로 함
- 마르코 페이는 스마트폰 앱(web)에서 QR코드를 사용해 전자결제, 국제송금, 현금화 등을 할 수 있는 해상물류 전용 전자화폐 플랫폼임
 - 마르코 페이는 미 달러와 가치를 완전 연동하며, Accenture가 시스템 기반 구축을 담당하고 시티그룹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제공함
- 기존 선상 결제 서비스에는 대부분 현금이 사용되고 있고 유럽권 일부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고 있지만, 전자화폐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마르코 페이가 최초임
 - 현재 선상에서 선원 급여 지급이나 일용품 구매 시 사용되는 현금 규모는 약 8,500억 원에 달함
 - 선장이 출납 등의 현금 관리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데다가 도난·분실 리스크가 있고, 선박관리회사가 선원의 본국으로 송금 시 고액의 수수료가 발생함
- 마르코 페이의 도입을 통해 선장·선원의 관리 부담이 감소하고 송금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
 - 선박관리(seafare manning) 회사는 본국으로 급여를 송금하는 수고를 줄이고, 선원 가족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마르코 페이로 송금을 받아 육상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음
 - 기간계약제 고용 형태로 인해 선원이 대출 및 보험 가입 시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, 마르코 페이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대출·보험 가입 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
 - 마르코 페이 사용 등 선원이 본연의 가치에 맞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선사 입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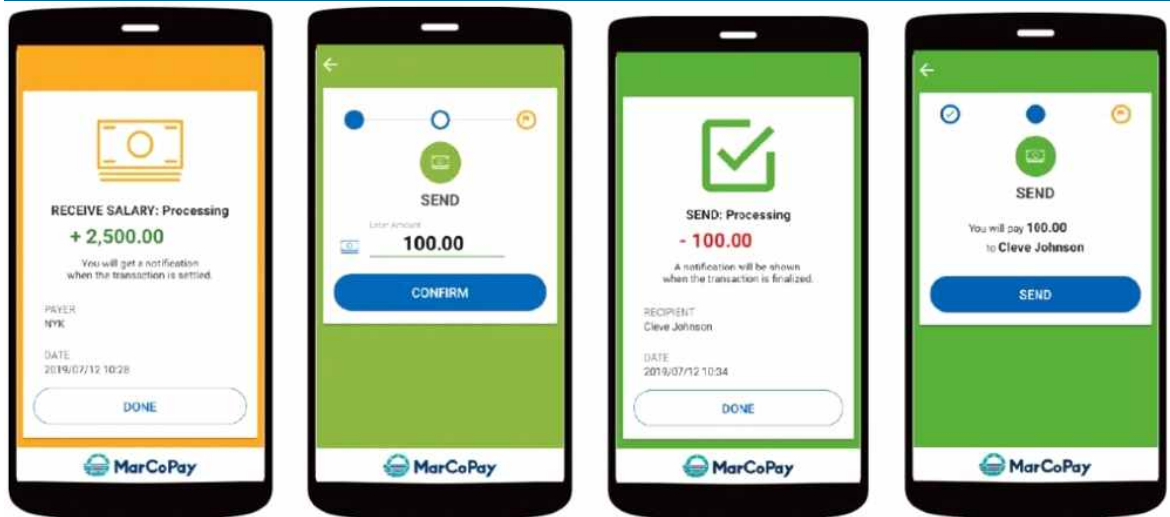


마르코 페이 사용 흐름도



자료 : <https://www.nyk.com>.

마르코 페이 앱



자료 : <https://www.nyk.com>.

참고자료 : www.secure.marinavi.com(검색일: 2020.9.3)

안영균 전문연구원
051-797-4643, ahnyg@kmi.re.kr